

지역 소식 통

부안군, 미소가애포트
민방위시범 대피훈련 실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5년 을지연습 기간 중인 20일 오후 2시 부안을 미소가애포트에서 실전과 같은 민방위 대피 시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훈련은 국가 비상사태 및 전시 상황을 가정하여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피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대피를 중점 진행되며, 부안군 민방위대원, 주민, 유관기관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미소가애포트는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대피 및 구조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장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는 실전 훈련을 통해 대피 절차와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시부터 5분간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위해 부안읍(이당사거리~터미널) 차량 이동도 통제된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직원 역량강화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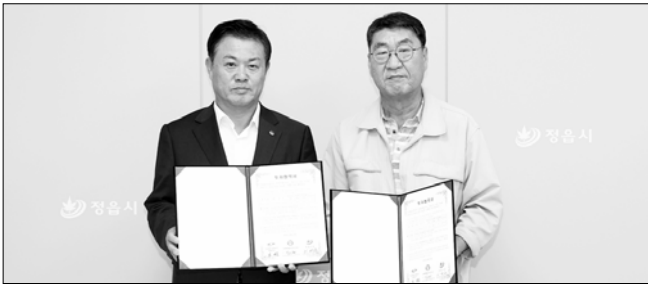
정읍시는 지난 19일 복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담당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민·관 복지지원 연계를 강화하고 사례관리 실무자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김행숙 복지환경국장(직접 진행했다. 그는 “복지는 사이다”라는 철학을 전하며 실무 중심 강의를 이어갔다. 교육 과정에서는 통합사례관리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다루고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김행숙 국장은 “복지 현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담당자 간의 경험과 철학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두성에스비텍 정읍 제3일반산단에 공장 증설... 신규 일자리 10명 창출

정읍시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두성에스비텍(대표 김연승)과 투자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시는 20일 시청에서 이학수 시장과 김연승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두성에스비텍(주)은 1988년 설립된 기업으로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 등을 생산한다. 주요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의 생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내 1586㎡(483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한다. 이번 투자 규모는 88억 5000만원이며, 신규 인력 1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은 중국 전기차 시장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설 투자는 기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공사는 10월 착공해 내년 6월 생산시



정읍시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두성에스비텍(주) 대표 김연승)과 투자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설을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에 뿌리내리고 성장해온 두성에스비텍(주)의 증설 투자에 감사드린다”며 “항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연승 대표는 “정읍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우선으로 활용, 상생·협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5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백산대회 역사적 의의 · 세계화 비전 모색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20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를 주제로 2025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의의와 활용방안(원도연 원광대 교수), 세계시민혁명의 동학농민혁명 위상 고찰(유바다 고려대 교수), 동학농민혁명 백산 봉기의 실제

승하기 위해 2021년부터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 전당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이 미래 세대로 이어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세계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논의하며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승하기 위해 2021년부터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 전당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이 미래 세대로 이어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세계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논의하며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 서해안복분자주 ‘선운’, 뉴질랜드에 1만병 수출

고창군은 서해안 복분자주(대표 송지훈)가 뉴질랜드 시장 진출을 위한 초도물량 1만 병(약 3500만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출하 준비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선운’은 엄선한 고창산 복분자를 황토 토굴에서 발효·숙성시켜 깊은 맛과 향을 살린 프리미엄 술이다. 2003년 대통령하사주, 2005년 APEC 공식민찬주, 2017년 청와대 만찬 건배주로 선정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물량은 뉴질랜드 현지 마트와 한인마켓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오세아니아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송지훈 대표는 “세계적으로 K-푸드와 전통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해외 시장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복분자주가 해외에서 인정받는 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다”며 “더 많은 나라에서 고창 복분자주를 맛볼 수 있도록 지원에 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체력인증센터가 2025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위, 광주·전라권역 1위에 오르며 우수한 운영 성과를 입증했다.

‘전국 2위 · 광주전라 1위’ 성과

정읍체력인증센터, 고객만족도 조사서 우수한 운영 입증

정읍체력인증센터가 2025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위, 광주·전라권역 1위에 오르며 우수한 운영 성과를 입증했다. 20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력 인증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설문문을 통해 진행했으며, 운영 인력, 센터 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정읍체력인증센터는 95.4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인 90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운영 인력의 전문성과 센터 환경 등 전 항목에서 고른 호응을 얻는 등 체계적이고 친절한 서비스가 시민만족도를 끌어올린 결과로 평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체력인증센터는 지역 주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1만 2000건 이상의 체력 측정과 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운동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만 4세~6세)부터 만 11세 이상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학생 건강체력평가(KAPS), 노인복지관, 공공기관 채용체력 측정 등 출장 서비스를 통해 폭넓은 계층에 스포츠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10건 선정

고창군이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빛나는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 공모전은 고창군의 공약사업인 ‘군정에 세대·계층별 평등한 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공모 부문을 군민과 공무원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제안 자격을 기존 군민과 공무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지난 5월30일부터 6월27일까지 접수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28건과 공무원 9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0건(국민 5건, 공무원 5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국민 부문에서는 김진수씨의 ‘농촌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방안’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발표심사에 응하

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참여상(10만원)이 주어졌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최우수상에 김남곤씨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긴급 안전보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우수상에 임형호, 최한솔씨의 ‘한곡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수탁사업 농가 계약 불가 민원 해소’, 장려상은 오현미씨의 ‘임야 농지 전환 규제 간편화’가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군수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장려상 30만원이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제안들은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